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다음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2. 화요 성경공부반을 모집합니다. 과목: 레위기 시간: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개강: 9월 4일 기간:12주 교재비: \$15
3. 세례자를 위한 예비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신청바랍니다. 교육: 8월 26일 주일(3주간) 세례식: 9월 16일 주일 2부예배
4. 지난 주에 나무 십자가 찬양대와 청년부를 위해 저녁 식사로 섬겨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 2019년 단기선교를 위한 예비 모임이 오는 9월 1일(토)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참여 바랍니다.
6. 새벽기도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금주의 기도제목

1.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2.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세상의 박수보다 심판이 있음을 믿고 깨어 있는 성도가 되도록.
3. 모든 성도들이 교회학교에 많은 관심을 두어 다음 세대를 잘 세워 가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2018년 8월 11일 나무십자가 찬양대 Multicultural Choral Service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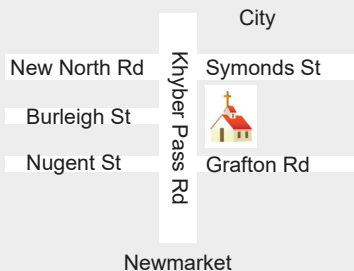
2018년 8월 12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106:47-48
◎ 찬 송	전능왕 오셔서 10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대 표 기 도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6:24-29
찬양대 찬양	하나님의 사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태한 목사
찬 송	예수 말씀하시기를 511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 교회 사역

8월 10일(금요일): 저녁기도회
 8월 19일(주일): 전도주일
 8월 26일(주일): 권사기도회
 8월 29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예배

8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김선화 집사
 다음 주일: 손조훈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박예원 자매
 8월 22일 수요일: 박후임 권사
 8월 22일 애찬: 최희숙 집사
 8월 26일 주일: 박병민 장로
 8월 26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8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허영순/손조훈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김민경/민경아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기 도	박일영장로
성경봉독	마가복음10:46-52
설 교	네 믿음이 너를/ 이태한목사
찬 송	453장
주 기 도	다같이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유태림 형제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 주는 터키 정성은 선교사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께

한국의 더위 못지 않게 여기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곳은 예년 겨울에 비해 덜 춥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 위 옛분(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후에 연연하지 않는 영육간 강건하심을 기원합니다.

터키는 세속 이슬람의 대표국으로 이슬람 스(선교)의 전초 기지입니다. 친 이슬람 대통령인 에르도안이가 6월 24일 대통령선거에서 52%로 승리하며 절대권력을 공고히 하며 21세기의 술탄이라 불리고 있습니다(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정치종교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 터키는 이원집정체제로 친 이슬람을 유지해 왔는데 작년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에 성공하고 첫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중임제입니다. 그러나 재선 임기 중간지점 직전에 재선을 시도 성공하면 2030년까지 권좌를 유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민주공화정이라는 국가가 근본 이슬람주의자인 절대권력자가 통치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신정 국가의 시작이 아닌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 상태는 2년만에 해제 되었습니다(2016년 7월 15일 일어난 구테타 이후). 새 대통령은 절대 권력자가 되었으므로 다른 정치적 도움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대통령은 취임 40일이 지나가는데 변화가 없어 짜증나게 하고 있으나 이들 국민들은 일단 관망하는 듯 합니다.

저는 여전히 문화협회(사역현장)에 나갑니다. 집은 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사무실은 유럽 지역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나가게 되는 시간이면 '내가 이스탄불에 살고 있구나'를 느끼며 하루 종일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곳을 지킵니다. 오늘은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학교의 방학과 더불어 협회 방문자는 급격히 줄고 더위는 움직임을 더욱 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위 옛 분이 주신 부담은 가만히 집에 있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담이 언제까지 저를 여기 머물게 하실지 남은 형편이 깨어지면 끝내겠지요.

이제 거주증 받기도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대상자를 90% 줄인다는 정책입니다. 저도 11월이면 2년이 지나 새롭게 거주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는 1년 준다고 합니다. 늘 반복되는 거주증 신청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허락하면 있고 불허되면 새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뚜벅뚜벅 걷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현지인과 대화하는 것이 너와 가정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사역이다' 라고, 오늘도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스탄불에서 정성은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터키 국내 사정이 호전되어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2. 사역에 지치지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